

자위적국방력강화의 일대사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시험발사에 성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동해 원산만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새형의 탄도탄시험발사는 고각발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기술적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사소한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현지에서 시험발사를 지도한 조선로동당 및 국방과학연구부부 간부들은

성공적인 시험발사결과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연구단위들에 뜨겁고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었다.

이번에 진행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시험발사의 성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로 된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모든 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따라서 우리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도 외세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야 마땅하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사변들을 통해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어떤 엄중한 난관과 장애도 극복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그 어떤 난관과 환경에서도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견지하고 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는 길에 조선반도평화의 흐름을 이어나갈수 있는 담보가 있다.

오늘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책동은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이를 묵인하고 그에 추종한다면 언제 가도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벗어나면 북남관계는 국경과 파국을 면치 못한다. 이것은 지난온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 통일을 바라다면 좌고우면하면서 외세의

침을 불같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과 근본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사교하고 행동해야 할것이다.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외세의 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공존, 북남관계발전의 추동력이란 외세주종, 외세공존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장애물이다.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길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많다고 하여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헤쳐나간다면 그 어떤 장애도 능히 극복할수 있을며 해결하지 못할것이란 없다. 지금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가치를 들고 평화번영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자주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

오늘 공화국은 자주로 존엄높고 위용떨치는 자주의 강국으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공화국이 자주의 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에서 자주를 철저히 실현하였기때문이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 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다.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자주로선을 견지하는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주의 생명으로 내세우시고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제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 공화국이 최악의 시련과 난관속에 서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자기를 선택한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하여올수 있는것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립장을 견

고수하여왔기때문이다. 오늘도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제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공화국의 자주정치는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공화국이 자주의 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있는것은 또 한 경제분야에서 자립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왔기때문이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이며 경제적자립을 떠나 정치에서의 자주를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평등하여 오시는 전기간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시고 남의 힘이 아니라 자립적경제체제의 위력으로 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끌어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 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남들이 《통합경제》를 강요하

거나 《시장경제》를 제창할 때에도 자립적경제체제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길로 나아갔으며 바로 그 길에서 남들이 몇백년이 걸려서야 이룩한 모든것을 짧은 력사적기간에 이룩하고 이 땅우에 민족번영의 튼튼한 토대인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다. 오늘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도 지난 수십년간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기때문이다. 공화국의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는 결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마련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자기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하여 온 간고한 투쟁의 산물이다. 어느 한 외신이 《조선의 경제력을 제재물품으로 제한한다는것은 불가능한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이미 자기가 살아나갈 길을 닦아

놓았기때문이다.》라고 평한것처럼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체제를 가진 공화국을 그 무슨 봉쇄나 제재 같은것으로 어찌보겠다고 하는것은 바다가 마르기를 기다리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것은 공화국이 자주의 강국으로 위용 떨치게 한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일제기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을 나라의 생사 존망과 민족의 자주권수호와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평화로운 시기에나 준엄한 시련의 날이나 시종일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전쟁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철옹성같이 지켜낼수 있는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위업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완성함으로써 인민들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강토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제 마음대로 통락하는 제국주의의 행태가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오늘에 있어서 공화국과 같이 자주적대가 강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승리와 번영은 언제나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하는 인민에게 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어제도 그 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주의 로선을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자제의 힘으로 이 땅우에 준엄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어야 할것이다. 최영남

해외동포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려

재일동포사회에서 총련지부전향창조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새로운 방법론과 경험들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이 사업에서 앞장서나가는 여러 지부의 경험은 동포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모두가 애국의 한마음 안고 이 진행하는것이 이 지부의 특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령도에 대한 해설, 현정세의 특징과 총련의 당면과업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그들은 귀중한 사상정신적양식을 받아안고있으며 애국위업의 정당성을 뼈부로 절감하고있다. 일상적이며 실속있는 학습을 통해 사상적으로 무장한 지부상임위원들은 분회들에 내려가 동포대중을 깨우쳐주고있다. 각 분회회의들에서는 의례히 지부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이 강사로 출현하고있다. 강연회가 진행될 때면 지부회관은 동포들로 꽉 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사상과 령도, 정력적인 대외활동과 그 눈부신 결과에 대한 강사의 깊이있는 해설은 동포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지부에서는 몇해 전부터 새 세대들을 위한 강연회도 특별히 조직하고있는 데 그 효과가 크다. 모든 지부위원들이 다 선진원, 선동원이 되어 동포들속에서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니 지부사업에서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으며 총련 아이찌현본부산하 미나미지부는 나고야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 동포사회와 총련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를 사업대상으로 하고있다. 새로 지부위원장으로 선출된 30대 중엽의 시걸현동포는 고민이 많았다. 이전 지부위원장직에서 닦아놓은 튼튼한 사업토대가 있는데 무엇이든 해놓을수 있었는가 하는것때문이었다. 오랜 일군들과 동포들을 만나 조언을 받는 과정에 그

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의 기탄없는 의견과 방조를 받으며 그는 모든 분회들을 정찰, 활성화할수 있는 묘안을 찾게 되었다.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분회들을 추켜세우기 위해 동포들의 기대에 보답할수 있는 미더운 새 세대들을 분회장으로 선출하고 그들의 사업을 적극 떠맡어주었다. 그리하여 모든 분회들에서 《총련 분회대표자대회-2020》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지부와 분회의 정상운영은 학생인사업에서 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늘 동포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사업에 구현한다면 뚜렷한 실적을 거둘수 있다는것이 이곳 지부위원들이 얻은 경험이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공화국선수권대회 개막

공화국선수권대회가 개막되었다. 평양과 평성, 원산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는 4.25체육단, 인목강체육단, 기관차체육단을 비롯한 120여개의 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여 축구, 룡구, 배구, 탁구 등 37개 종목의 440여개 세부종목경기를 진행하게 된다. 개막식이 1일 청춘거리

로경기관에서 있었다. 개막사를 김정수 체육성 제1부상이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연설자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 감독들

이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평시에 다져온 육체기술적능력 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성과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렬행진에 이어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사이의 남자룡구경기가 있었다. 본사기자



◆《금동이의 아름다운 숲은 천 백성의 피요, 옥 소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쁨이라. 초벌눈물 떨어질 때 백성눈물 떨어지고 노 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18세기경에 창작된것으로 추정되는 《춘향전》에서 나오는 시의 구절이다. 시는 봉건관료통치배들의 부패상과 횡포성을 폭로하고 봉건통치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원한의 감정과 반항의 기분을 반영하였다. ◆일마전

남조선의 서울에서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족적 시위를 벌였다. 거대한 초벌바다에 둘러싸인 대검찰청은 고립된 하나의 섬을 방불케 하였다. 《검찰개혁》, 《적

을 들고 서울의 거리들을 밝힌것은 《자한당》과 부패검찰, 보수언론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썩기 쉬워도 아름답거나 썩지 못한다고 했다. 한개의 초벌은 어둠을 세계 밝히지 못하고 바람에 쉽게 꺼지지만 그 초벌이 모 이고모여 바다를 이루면 세상을 밝히고 불의를 태워버린다. 남조선이 또다시 초벌의 바다가 되었다. 인민이 분노와 정의의 초벌을 추켜들고 《자한당》과 검찰을 비롯한 사회의 적대세력들을 깨뜨리 태워버리기 위해 불의 바

다를 쫓았다. ◆사리나우 한가치는

◆수백만명이 손에손에 초벌

◆수백만명이 손에손에 초벌

◆수백만명이 손에손에 초벌

◆수백만명이 손에손에 초벌

◆수백만명이 손에손에 초벌

◆수백만명이 손에손에 초벌

어머니당의 기폭에 인민이 있다

10월 10일은 공화국인민들이 《어머니생일》이라고 궁지와 환희에 넘쳐 부르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일이다.

수수천년 가정의 울라리에만 머물러있던 어머니날 말이 이 땅에서 당에 드리는 인민의 송가가 되어 끝없이 울려 퍼진다.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맑고 푸른 10월의 하늘가에 휘날리는 당기를 바라보면 정답과 눈부신 자라는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진 어머니의 모습이고 폭풍을 맞받아 역세전 기폭의 세찬 펄럭임소리는 광명행 캐럴에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울려온다.

창풍을 물들이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폭에는 인민이 있다.

마치와 낮과 빛!
지구상에 당이란 조직체가 생겨난 이래 세계의 어느 당도 자기의 당기에 인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집약적으로 새겨넣은 적이 없다.

인류사상 첫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불리운 1871년의 파리공포는 로동계급의 마르크스를 예외로 이천로씨야의 사회주의 10월혁명도 노동동맹을 의미하는 마치와 낮만을 당기에 새겨넣었다.

세계에는 유명무명의 수많은 당들이 존재했지만 마치와 낮과 붉은 새겨넣은 당기는 조선로동당기 하나뿐이다.

붉은 기폭에 새겨진 마치와 낮과 붉은 인민이 자기 운명과 세계의 주인이며 새시대를 개척하고 역사를 완성시켜나가는 주체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인민은 있었지만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시대를 개척하고 역사를 전진시켜나가는 창조자로서의 존엄과 긍지로 땀땀이 나선 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다.

인민의 어머니, 인류해방의 은인인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그때부터였다.

주체사상은 인간이 자기를 알기 위한 빛이고 인류사를 올바른 길로 떠밀어주는 라침판이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력사발전에서 밀려나있던 인민을 자기 운명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력사의 중심에 내세워주셨다.

하나의 확신이기에 인간, 인민에 대한 거룩한 송가이고 최고정화인 주체사상은 수령님께서 10대의 시절에 창시하신것으로 하여 더욱 경이롭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이 우리의 선생이고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며 대중을 묶어주시고 인민의 힘을 조직동원하여 반일투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날에 이민주권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다.

소박한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신 어머니수령님이시기에 위대한 주체의 진리도 이름난 대학가나 서가에서가 아니라 인민들속에서 발견하시었고 그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도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현실을 통하여 검증하시었다.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만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만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은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두차례의 반체성정도,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도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을 묶어세워 승리로 이끌고 갔다.

해방후 인민의 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창건을 선포하시며 소박하고 근면하며 정의롭고 강직한 우리 인민을 마치와 낮과 붉은 소 상징하여 기폭에 새겨주신분도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었다.

당시 지식인은 사회의 간층이기에 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의 구성성분으로 될수 없다는 선행이론의 《절대성》을 운운하는 편협한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로동자, 농민의 새 사회에서는 지식인들이 있지도 않는 자본가계급에게 복무할수 없다는 데 대하여 단호히 선언하시고 력사와 시대의 주인으로 땀땀이 내세워주셨다.

이렇게 되어 근로인민을 상징하는 마치와 낮과 붉은 기폭에 새겨져 당기발로 휘날리게 되었다.

공화국인민들은 당기에 새겨진 마치와 낮과 붉은 기폭에 유일무이한 위대한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뜨겁게 절감한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이 토지개혁법령,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남남평등권법령 등과 무상치로, 무료교육을 비롯한 인민사랑의 정치로 인민이라는 도양에 뿌리박고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이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다.

공화국의 도사 《인민들속에서》는 1962년 3월에 제1권이 출판된 때로부터 2012년 3월까지 1810여권의 회상실기를 묶어 100권으로 출판되었고 지금도 계속 발행되고 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인민적품모의 대화원이고 인민사랑의 대서사라고 할수 있는 도사에는 로동자들의 기쁨은 손을 잡으시고 허물없이 이야기하시며 그들이 먹는 국맛도 보아주시는 공장의 구내길이 있고 대동강으로 흘러든 서해의 잔물파해정형을 알아보시려 눈물을 성글며서 맛보신 포전길도 있으며 혈연의 정으로 화목한 사회가 살려낸 아이를 안으시고 로동당의 아이들이

라고 거듭 외우신 가슴뜨거운 화폭도 새겨져 있다.

인민들을 만나시어 하신 말씀은 또 얼마나 만민의 심금을 울리는 것인가.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믿고...
어머니의 품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차별이란 있을수 없다.
어머니수령님의 교시들에는 인민에 대한 무한대의 사랑과 드립없는 믿음, 한량없는 은정이 담겨져 있다.

1994년 4월 미국 CNN TV방송회사 기자단이 수령님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문의를 드린적이 있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에 대해 알고싶어 한다고, 인격과 정책을 형성하는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다고.

어머니수령님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점이 없는 평범한 인간이다, 특별한 취미란 책읽기를 좋아하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과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나의 취미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가 말하는 스승이라면 나의 가장 지혜롭고 박식한 선생은 인민이다,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문학도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에게서 배우고 있다고 하시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울리는 인민사랑의 화원을 가꾸고 빛내주시면서도 모든 공격을 인민에게 돌려주시는 수령님이시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오늘 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라고 행복과 긍지에 넘쳐 노래부렀고 어느 문인은 인민은 수령님을 태양으로 모시었지만 수령님께서서는 항상 인민들속에 계시었다고 토로한것이리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인민을 위한 사랑의 환경생을 보내시었다.

공화국인민들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추억의 세계에는 《죽림》과 《웨기법》에 대한 일화도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라.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고 따뜻한 정을 담아 말씀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당기 진정한 어머니당으로서, 인민권리의 대표자, 리익의 수호자, 승리의 향도자로서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게 하여 주시었다.

거룩한 생애의 시작도 끝도 오직 인민뿐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이민주권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인민을 위한 정책과 사책, 인민에 대한 따뜻한 은정은 오늘도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

창건 첫날부터 70여년의 년륜을 기록하며 변색과 탈선을 모르고 깨끗이 휘날리는 붉은 당기의 마치와 낮과 붉은 새겨놓은 공화국인민들은 봄날처럼 약동하고 민족만대로 부강번영할 광명한 미래를 확신한다.

당기의 펄럭임소리에서 인민은 만민의 청송을 받으시는 절세위인의 환신형 영상을 뵈옵는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라.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고 따뜻한 정을 담아 말씀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당기 진정한 어머니당으로서, 인민권리의 대표자, 리익의 수호자, 승리의 향도자로서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게 하여 주시었다.

거룩한 생애의 시작도 끝도 오직 인민뿐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이민주권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인민을 위한 정책과 사책, 인민에 대한 따뜻한 은정은 오늘도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

창건 첫날부터 70여년의 년륜을 기록하며 변색과 탈선을 모르고 깨끗이 휘날리는 붉은 당기의 마치와 낮과 붉은 새겨놓은 공화국인민들은 봄날처럼 약동하고 민족만대로 부강번영할 광명한 미래를 확신한다.

당기의 펄럭임소리에서 인민은 만민의 청송을 받으시는 절세위인의 환신형 영상을 뵈옵는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라.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고 따뜻한 정을 담아 말씀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당기 진정한 어머니당으로서, 인민권리의 대표자, 리익의 수호자, 승리의 향도자로서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게 하여 주시었다.

당기 진정한 어머니당으로서, 인민권리의 대표자, 리익의 수호자, 승리의 향도자로서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게 하여 주시었다.

거룩한 생애의 시작도 끝도 오직 인민뿐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이민주권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인민을 위한 정책과 사책, 인민에 대한 따뜻한 은정은 오늘도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

창건 첫날부터 70여년의 년륜을 기록하며 변색과 탈선을 모르고 깨끗이 휘날리는 붉은 당기의 마치와 낮과 붉은 새겨놓은 공화국인민들은 봄날처럼 약동하고 민족만대로 부강번영할 광명한 미래를 확신한다.

당기의 펄럭임소리에서 인민은 만민의 청송을 받으시는 절세위인의 환신형 영상을 뵈옵는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라.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고 따뜻한 정을 담아 말씀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당기 진정한 어머니당으로서, 인민권리의 대표자, 리익의 수호자, 승리의 향도자로서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게 하여 주시었다.

거룩한 생애의 시작도 끝도 오직 인민뿐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이민주권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인민을 위한 정책과 사책, 인민에 대한 따뜻한 은정은 오늘도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

창건 첫날부터 70여년의 년륜을 기록하며 변색과 탈선을 모르고 깨끗이 휘날리는 붉은 당기의 마치와 낮과 붉은 새겨놓은 공화국인민들은 봄날처럼 약동하고 민족만대로 부강번영할 광명한 미래를 확신한다.

당기의 펄럭임소리에서 인민은 만민의 청송을 받으시는 절세위인의 환신형 영상을 뵈옵는다.

당기 진정한 어머니당으로서, 인민권리의 대표자, 리익의 수호자, 승리의 향도자로서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게 하여 주시었다.

거룩한 생애의 시작도 끝도 오직 인민뿐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이민주권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인민을 위한 정책과 사책, 인민에 대한 따뜻한 은정은 오늘도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

창건 첫날부터 70여년의 년륜을 기록하며 변색과 탈선을 모르고 깨끗이 휘날리는 붉은 당기의 마치와 낮과 붉은 새겨놓은 공화국인민들은 봄날처럼 약동하고 민족만대로 부강번영할 광명한 미래를 확신한다.

당기의 펄럭임소리에서 인민은 만민의 청송을 받으시는 절세위인의 환신형 영상을 뵈옵는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라.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고 따뜻한 정을 담아 말씀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당기 진정한 어머니당으로서, 인민권리의 대표자, 리익의 수호자, 승리의 향도자로서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게 하여 주시었다.

거룩한 생애의 시작도 끝도 오직 인민뿐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이민주권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인민을 위한 정책과 사책, 인민에 대한 따뜻한 은정은 오늘도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

창건 첫날부터 70여년의 년륜을 기록하며 변색과 탈선을 모르고 깨끗이 휘날리는 붉은 당기의 마치와 낮과 붉은 새겨놓은 공화국인민들은 봄날처럼 약동하고 민족만대로 부강번영할 광명한 미래를 확신한다.

당기의 펄럭임소리에서 인민은 만민의 청송을 받으시는 절세위인의 환신형 영상을 뵈옵는다.

당기 진정한 어머니당으로서, 인민권리의 대표자, 리익의 수호자, 승리의 향도자로서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게 하여 주시었다.

거룩한 생애의 시작도 끝도 오직 인민뿐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이민주권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인민을 위한 정책과 사책, 인민에 대한 따뜻한 은정은 오늘도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

창건 첫날부터 70여년의 년륜을 기록하며 변색과 탈선을 모르고 깨끗이 휘날리는 붉은 당기의 마치와 낮과 붉은 새겨놓은 공화국인민들은 봄날처럼 약동하고 민족만대로 부강번영할 광명한 미래를 확신한다.

당기의 펄럭임소리에서 인민은 만민의 청송을 받으시는 절세위인의 환신형 영상을 뵈옵는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라.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고 따뜻한 정을 담아 말씀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당기 진정한 어머니당으로서, 인민권리의 대표자, 리익의 수호자, 승리의 향도자로서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게 하여 주시었다.

거룩한 생애의 시작도 끝도 오직 인민뿐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이민주권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인민을 위한 정책과 사책, 인민에 대한 따뜻한 은정은 오늘도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

창건 첫날부터 70여년의 년륜을 기록하며 변색과 탈선을 모르고 깨끗이 휘날리는 붉은 당기의 마치와 낮과 붉은 새겨놓은 공화국인민들은 봄날처럼 약동하고 민족만대로 부강번영할 광명한 미래를 확신한다.

당기의 펄럭임소리에서 인민은 만민의 청송을 받으시는 절세위인의 환신형 영상을 뵈옵는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받들어모시여

10월 8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지 22돌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이하게 되는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선로동당을 민족자주위업수행의 위대한 향도자로, 인민의 운명과 행복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뜨겁게 차오르고 있다.

세상에 당이 출현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고 오늘날도 각이한 리념과 주의주장을 내세우는 당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과 같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온 당은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이끌어오시였기에 이 땅위에 통성변영하는 인민의 나라가 일어설수 있었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 인민의 행복과 삶이 더욱 튼튼히 담보되게 되었다.

지난 20세기 90년대는 공화국인민이 제국주의권력해체와 총포성없는 대결전을 치른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의 날이었다. 적대세력들이 사회주의 《총망》과 공화국의 《붕괴》를 떠들며 대조선적시정체를 약탈할까 버리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사회주의조선의 불멸성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만천하에 시위한 력사적사건으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 건설과 당건설에서 틀어쥐고 나아가 한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힌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혁명정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로동당이 민족자주위업수행의 향도자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고귀한 지침을 마련하시었다.

그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명실공히 민족의 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향도자, 인민의 운명과 행복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으며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준엄한 시기 선군정치를 조국수호의 제일요령으로 틀어쥐시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었다.

우리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는것을 몰라서 인민군대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 어떤 괴담을 지르더라도 조국을 지키고싸야 한다, 나라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부는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며 다박출조소로부터 철령과 오성산, 조도와 관문점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최전방, 최전진전지들과

전도들을 쉬임없이 찾으시며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신 어머니장군님이시다.

위대한 령당의 탁월한 령도 아래 나라의 군력은 무전막강하게 다져져 적대세력의 간섭과 침략책동이 걸음마다 분쇄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굳건히 수호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국가발전의 응대한 설계도를 펼치셨고 조국강성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부강조국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전세 인민이 강행군을 하는 때인데 어떻게 따뜻한 온돌방을 찾아다녔는가고, 인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긴장하게 강행군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폭잡과 웨기법을 드시며 강행군길을 걷고걸으신 장군님이시었다.

인제인가 그이께서는 습관된 련차생활에 대해 추억하시면서 이제는 련차에 오르면 집에 온것만 같고 반대로 집에 들어서면 련차에 온것 같은 느낌 이 든다고, 어쩌다 풍성한 대대에 들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시었다.

나라의 통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나라를 주름잡아 달려신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이 있어 주체철완성과 비날론대경사, 주체비료생산체계의 완성 등 수많은 기적적성과들이 이룩될수 있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장 공

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시어 민족의 통일적 대외활동으로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비상히 높이시고 세계자주위업실현에 력사적공헌을 하시었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장군님을 최세의 정치원로, 걸출한 령도자로 신뢰하면서 그이께서 조선로동당을 이끌어오신 로정은 력사가 밀리지 못할수 있는 전인미답의 길을 완강히 헤치고 나라와 인민의 운명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새겨준 영웅사시적행보라고 칭송하였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자주의 기치높이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뚫고 민족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민족자주위업수행의 향도적력량으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 전도양양한 당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인덕정치가 펼친 인민사랑의 대화원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의 현실은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인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배후는 위대한 인덕정치는 이 땅에서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펼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가정의 울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새롭게 정의하시고 인민들을 따스이 보살펴주시었다.



김정혁

대박산은 숭고한 민족애를 길이 전한다

민족은 역사속에 존재하며 역사와 더불어 발전한다. 조선민족은 인류문명의 려명기부터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였다. 려사발전의 각이한 려정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기며 인류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여온 재능있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세계5대 문명의 하나인 대동강문화를 창조하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축우기며 금속학자, 철강선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겨레의 문화유산이 오늘날 민족사, 인류문화사에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게 된것은 결코 그 우수성과 유구성으로 하여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민족의 려사와 문화를 중히 여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려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는 외세의 끊임없는 간섭과 침략에 의하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파괴탈탈당하였다. 특히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로 우리 민족사는 폭신하게 파괴탈탈되어 려사의 이끼속에 적지 않게 묻혀 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이 당한 치욕과 불행에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프게 여기시며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 길에 빛내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려사의 풍운속에서 외롭고 복잡하게 얽힌 려사문제들을 일일이 바로잡아주시어 우리나라가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확증하시었고 단군조선으로부터 려사발전의 합법적과정을 거쳐 전면히 이어져온 민족사를 옹바로 정립해주시었다.

민족유산을 주제적립장에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정책을 제시하시고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새롭게 발굴고 중화하도록 하며 외세에 의하여 파괴된 유적들을 개건하도록 하시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려도에 의하여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은 민족의 재보로 길이 빛나게 되었다.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우리 나라에서 첫 국가

의 시원을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우리 민족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원토록 전하여가야 할 불멸의 공적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83(1994)년 10월 어느날 개건된 단군릉을 돌아보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수수천년 려사의 풍운속에 신화로만 전해오던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시조릉을 완벽하게 개건하여 유구한 조국의 려사와 민족의 슬기를 자자손손 궁지 높히 전할수 있게 하여주시었다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로, 일대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단군릉이 발굴되고 유골이 발견되어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한 인물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단군릉의 최종형성안을 지도하시고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인만큼 단군릉을 시조릉답게 세우야 한다고 하시며 개건할 통의 터전과 그 형식, 규모도 정하여주시었다.

단군릉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세우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관심과 끊임없는 로고에 의하여 풍치수려한 대박산마루의 명

당자리에 단군릉이 품위있게 건설되게 되었다.

45정묘의 넓은 면적에 자리잡은 높이 22m, 밀단길이 50m인 정4각추형돌무덤형식으로 축조된 통은 개건년대를 상징하여 1994개의 돌로 쌓았다. 화강석 석판만 하여도 무려 7만 2천여개가 들었다.

단군릉과 왕건왕릉, 량천사, 개시사, 월정사 등 려사문화유적들을 찾하시고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시였으며 조상전례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하여 민족의 넘과 향취가 차남치게 하시었다. 녀성들이 유아하고 고상한 조선옷을 즐겨 입도록 하시고 대중음식과 지방토래기 음식을 장려하도록 하시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정월대보름, 추석 등 민족명절을 뜻깊게 쇠며 웃놀이, 제기차기와 같은 민속놀이도 자주 하고 걷기도, 씨름같은 전통체육을 널리 하여 온 나라가 민족체육열풍으로 흥성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군의 유구한 려사와 찬란한 민족의 계승발전시키도록 하는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려사를 바로잡는데서 중요

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옹바로 평가하고 해명하시어 민족사를 더욱 빛내어주시였으며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문화유산들이 민족의 려사와 혈맥을 이어주는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도록 하시었다.

단군릉과 왕건왕릉, 량천사, 개시사, 월정사 등 려사문화유적들을 찾하시고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시였으며 조상전례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하여 민족의 넘과 향취가 차남치게 하시었다. 녀성들이 유아하고 고상한 조선옷을 즐겨 입도록 하시고 대중음식과 지방토래기 음식을 장려하도록 하시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정월대보름, 추석 등 민족명절을 뜻깊게 쇠며 웃놀이, 제기차기와 같은 민속놀이도 자주 하고 걷기도, 씨름같은 전통체육을 널리 하여 온 나라가 민족체육열풍으로 흥성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현명한 려도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려사는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사를 계승발전시키도록 하는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려사를 바로잡는데서 중요

함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은 우리 민족의 현대력사를 찬연히 빛내어주시였을뿐아니라 반만년의 민족사를 옹바로 정리하여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상에 떨쳐주시민족의 아버지, 절세의 애국자, 대성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려도에 의하여 유구한 려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사는 면면히 즐기차게 흐르고있다.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법을 빛내이는 애국시업이다》를 발표하시어 민족의 려사와 전통을 길이 빛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었다.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과 민족의 발전은 위대한 려수를 모실 때 참다운 애국의 려사, 민족의 려사로 빛나게 되며 후세에 길이 이어지게 된다는것을 민족의 반만년력사가 확증하여 주고있다.

대를 이어 절세의 애국자, 탁월한 정치가가 높이 모셔 인민족의 려사도 빛나고 미래는 더욱 창창하다는것을 우리 겨레는 때부로 절감하고있다.

흥 결



민족통일준비위원회창설을 제안하고

북남관계에서 날이 갈수록 수세에 몰리게 되자 남조선당국자는 1978년 6월 23일 이른바 《남북경제협력협약의 기구구성》에 대한 제의를 내놓았다. 그 글자는 《남북간의 교역, 기술협력, 자본협력의 길을 열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쌍방의 민간경제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기구의 구성을 제의)》한것인데 이것은 철두철미 분렬을 노린 《두개조》조작책동의 산물이었다.

공화국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7월 1일 《로동신문》를 통해 《남북경제협력협약의 기구구성》 제의를 위한것이 아니라 두개의 조선을 목표로 한 분렬주의정책에서 나온 《6.23선언》의 제의》이라고 그 정책을 까발리고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6.23선언》을 취소하고 남조선정권 미군을 철수시키며 반공정체과 애국인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는 동시에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제 67(197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 기념 중앙경제대회에서 하신 려사적인 보고서에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문제에 평화적해결을 위한 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고 남조선의 당국자들, 각 정당들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있다고 하시면서 분렬을 위한 대화라 아니라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승공》을 부르짖으면서 공산주의자들 《경제협력》을 하였다는것은 리치에 맞지 않으며

그것은 분렬주의자의 정책을 가리워보려는 서툰 위장술에 지나지 않는다는것, 민일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진실으로 대화를 하고 합작을 하려고 한다며 민족분렬정책을 통일정책으로 바꾸고 반공정책을 련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이것은 분렬을 위한 대화라 아니라 통일을 위한 대화를 통해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라는것이며 북남대화를 당국자들만이 아니라 각 정당들과의 폭넓은 대화로 전환시키자는것이였다.

이로부터 1979년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의 본래의 리념과 원칙으로 되돌아갈데 대한 문제,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을 즉시 중지할데 대한 문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무조건 즉시 중지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로 구성된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제안에 대하여 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자 남조선당국자들은 1월 26일 이에 형식적으로나마 긍정적반응을 보이지 않을수 없었다.

공화국정부는 북남대화를 실현시키려는 일념에서 1월 31일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을 통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1월 23일 성명에 지적된대로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7.4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을 철저히 리행할것을 재확인하고 2월 1일 오후 10시를 기하여 상대방을 비방증상하는 모든 선전과 행사를 일방적으로 중지할데 대한 중독적조치를 취한다는것을 내외에 천명하였으며 남조선측에서도 해당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측이 1월 31일 조일위원회를 재개할것을 제의하여온것과 관련하여 2월 5일 성명을 발표하여 온 민족의 총의에 의하여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려사적과제가 일정에 나르고 있는 조건에서 조일위원회와 같은 제한된 기구대신 전면적민족 대화와 협상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협약기구로 서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것을 제의하였다. 이 건설적인 제안에 의하여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마련하기 위한 쌍방리락대표들의 접촉이 세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접촉들에서 공화국은 일관하게 당국자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당국자들만이 참가하는 북남조일위원회를 재개할것을 집요하게 고집하였다. 공화국은 남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 대화를 전진시키려는 일념에서 쌍방리락대표의 명칭을 각각 북측 또는 남측 《정당, 사회단체 및 당국리락대표단》으로 하고 접촉을 정상화하며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한 새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남측은 그 무슨 《실무대표접촉》이라는 엉뚱한 문제를 들고나와 접촉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는 4월 5일에 제4차 접촉에 나오라는 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공화국이 남조선에 대한 비난을 전면적으로 중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전수단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의 제도와 리념을 헐뜯는 비방선전을 전례없이 강화하였으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조치를 일삼았다. 특히 남조선당국자들은 나라의 동사를 가리지른 군사분계선 구간에서 《분렬의 장벽》으로 불리우는 콩크리트장벽구축을 더욱 다그쳤다.

콩크리트장벽은 남조선당국에 의해 1977년부터 여러차례 걸쳐 1292개의 말뚝을 박은 군사분계선을 따라 동서의 산허리와 강하천을 가로지르며 240여km에 달하는 구간에서 구축되었다.

여기에는 80여만의 세멘트와 20여만의 강재, 350여만㎡의 혼합물, 수백만공수의 로력이 투하되었다.

콩크리트장벽의 높이는 5~8m, 밑부분 너비는 10~19m, 윗부분 너비는 3~7m나 된다.

이로 하여 북과 남사이에는 8개의 군과 122개의 마을을 갈라놓고 3개 로선의 철길을 동장되었으며 220여개의 크고작은 도로들을 끊어놓은 분렬과 대결의 장벽이 생겨나게 되었다.

본사기자 최광혁

공화국의 품에 안겨 수십년간을 노래와 함께 살아온 나의 아버지(인민배우 전우봉)는 늘 기쁨과 행복속에 즐거워하였다.

50살이 될 때까지 부대에 속 노래를 불렀고 70살이 될 선 날을 때까지 교단에서 후대교육사업을 한 아버지였지만 녀로보장을 받은 다음에도 제자들을 위해 애쓰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더없이 즐거운 일은 귀여운 손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두벌자식이 더 곱다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도 손자들이 고사서 어쩔줄을 몰라하셨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짬만 썼으면 청음훈련을 시킨다, 첼로 연습을 시킨다 하며 소동을 일으키곤 하셨다. 아버지는 아마 손자들중에서라도 유명한 성악가수가 나오기를 원하셨던것 같다.

언제나 웃음속에 로망이장하는 아버지를 보며 우리 자식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러워했다.

허나 사람들은 그토록 부된 삶을 누려온 아버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자리잡고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있다.

아버지가 쓴 자서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명절날이나 휴식일이나 모란봉에 올라 줄거은 한때를 보낼 때면 지금도 아들의 생애어부를 불러 근심과 걱정, 눈물과 한숨속에 날과 달을 보내고 계절 늙으신 어머니와 형님을 생각하곤 한다. 그리면 그들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때문에 가슴이 터져온다... 우리 집에 들어서면 사진액틀에 특별히 잘린 천연색

가족사진이 한장 있다. 이 사진이 바로 내가 1985년 북남정적사단체들의 합의에 따라 예술단 및 교향방문단성원으로 서울에 나갈 때 어머니와 형님을 만나 주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볼 때면 분렬의 아픔이 사무쳐와 가슴이 미어진다.》

1985년 9월, 이날 아버지는 나라가 갈라진 이래 처음으로 예술단 및 교향방문단의 한 성원으로 고향인 서울에 가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남쪽으로 나가기 전날밤을 뜬눈으로 새우셨다. 어찌 그렇기까지... 35년만에 만나게 될 어머니와 형님이 아닌가.

어제날의 목욕의 아들, 철공소 소년로동자가 오늘은 인민들의 사랑받는 인민배우, 대학 학부장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대견스러워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짜개마지 그 시절 동배이들과 같이 시절 치며 놀던 한강가를 그려보는데 아버지는 온밤 지 멀리 남녘하늘가를 바라보시었다. 아버지뿐이 아니였다. 온 집안이 들썩했다. 어머니(김승희)와 우리 모두 한번도 만나본적 없는 할머니를 그리며 편지를 썼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막내며느리예요. 결혼한지 24년, 네 아이의 어머니가 되도록 아직 어머니께 인사할리치 못하고있는 죄송사들이 안타깝게은 그지없어요... 어머니와 같이 가서 큰절을 올리고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어머니, 부디 통일의 그날까지 몸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요》

《...보고싶은 할머니! 난 만손녀 화심이고 네 동생들인 화심이, 화란이, 철우도 있어요...》

수기 짜뜻 할 삶의 기록 (2)

우리는 편지와 기념품들을 트렁크안에 넣는다, 또 록음테이프에 할머니와 큰아버지에 보내는 노래를 잡는다 하며 야단이였다.

그도 그렇듯이 우리들도 마치 남녘에 있는 혈육들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온 사진속의 할머니와 큰아버지, 4촌형제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마음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며칠후 우리의 성가 깃든 기념품들이 어느 하나도 전달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던것이다. 우리 예술단 및 교향방문단의 서울방문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여러들질해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였다. 그리고는 지금껏 피우지 않던 담배를 불어 무는것이였다.

이윽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 해주었다.

서울에 도착한 아버지는 울렁이는 마음을 안고 이제 나저제나 혈육들과의 상봉의 순간만을 기다렸다. 이제 어머니와 형님을 만나보고 싶은 말인들 얼마나 많으며 묻고싶은 말은 또 얼마나 많은가. 아마도 한밤이 새도록 말해도 다 하지 못할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아버지의 가족들을 한명도 찾지 못했다. 이는 기뻐하였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흥분으로 눈뿜던 가슴이

금지 풀아들었다. 나의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것은 거짓말이라고 아무리 항의했자 허시었다.

(어머니, 35년만에 이 아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어대 계십니까? 어머니!)

속으로 애래게 부르고 불려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느수없이 아버지는 서울에 체류하는 기간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안락까운 날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안되였다. 한강기슭을 돌아 자그마한 산골짜기에 지은 호별이라 창밖을 내다보아도 아무것도 볼수 없는 속에서 한초가 한시간 맞잡으며 흘러갔다 한다.

그러나 우리 예술단 및 교향방문단이 서울을 떠나기 전날 저녁 연회에 참가했던 아버지는 놀라운 일에 부닥치게 되었다.

연회장에서 나와 승강기쪽으로 걸어가고있었는데 뒤쪽에서 《저, 흑시... 한용범씨가 아닌가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의 어릴적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늙은 녀인, 낯모를 그 녀인을 자제히 바라보면 아버지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30여년전의 용공으로 입대해 자기를 바래주던 형수임을 알아보았던것이다.

《아니, 이게 누구요? 형수님!》

《적은이!》

두사람은 뜨겁게 포옹하였다.

《형수님, 그세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은, 형님은 어디에?》

《저... 어머니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형님도 두해전에 심장병으로 그만...》

《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념도 못하고 흐느끼던 형수가 문득 생각나듯 옆에 서있는 청년을 가리켰다.

《참, 이게 조카예요.》

《삼촌! 흑흑...》

아버지는 절을 하는 조카를 일으켜세웠다. 얼핏 봤는데도 형님의 모습과 신동하였다.

와와와와 떨리는 손으로 조카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아버지는 형수와 조카의 손을 덥시 잡고 승강기로 향하였다. 자기가 려미로 는 방에 가서 그동안 회포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승강기안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여기에 왔는가고 물었다.

형수는 우리 예술단 및 교향방문단이 서울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흑시나 해서 TV를 봤는데 경력이라 생경해서 시동생과 누르도 비슷해



전우봉과 그의 가족들(1985년)

는가?)

하지만 남측성원들은 가지 않았다고 뻔치는 형수와 조카를 강제로 끌고가다싶이 승강기에 실고 사라져버렸다.

너무도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여서 그때 아버지는 큰어머니가 가져왔던 사진을 보지 못한채, 가지고간 우리 가족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지 못한채 또다시 생리별을 당하게 되었다. 심장이라고 간이 마르도록 기다려온 그리움의 35년이 산산이 깨져나간 통절한 순간이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동생들도 모두가 울었다. 이것이 어찌 우리 가장 하나만 이 당하는 아픔이라. 온 겨레가 함께 당하는 고통이었다.

《난 이번엔 누가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고 누가 통일을 악랄하게 반대하는가를 통렬히 체첸했다.》

이렇게 가슴찡한 아버지는 답답한 가슴을 식히려는듯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었다.

아버지는 원래 성대를 아끼는 사람이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때는 노래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라》를 부르셨다. 온 가족의 흐느끼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밤하늘가에 울려퍼졌다.

아버지는 영화의 주제가를 부르던 그 매머드 절절한 겨레의 통일대원을 자기의 목소리에 담아 부르셨었다.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아버지는 나에게 조카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알려주시며 조국이 통일되면 꼭 찾으라고 당부하였다.

이런 절절한 당부

가 어제 나의 아버지 한사람만의 당부라고 하라. 분렬의 아픔을 안고 몸부림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원인 것이다.

아버지가 남녘의 혈육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기념품들을 우리 가족은 지금도 정히 간수하고있다. 색바랜 편지와 가족사진 그리고 할머니와 큰아버지를 위해 마련해 놓았던 옷감들이 오늘도 그날의 가슴아픈 사연을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성악학부전 교원이였으며 인민배우인 아버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요인의 려전에 화환을 보내주셨다. 뿐만아니라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유가족들이 살아 올린 편지도 친히 보아주시었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오늘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안겨온 은혜로운 품, 우리 모두가 안겨사는 따뜻한 그 품이 있어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통일, 북과 남의 온 겨레가 소원하는 통일의 그날은 기어오 고야말것이라는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의 수기를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시던 노래로 마감 하려다

어 버 이 수 령 님 김일성대원수님 끝까지 충성을 다하렵니다 지난날 어둠속에 헤맨 이 몸이 오늘은 대의원이 되었습니다 아 은혜로워라 수령님품이여

전 화 심(전우봉의 만필) (끝)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반영

최근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은 기자회견, 호소문발표, 기념집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에서 천명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북남합의리행에 소극적태도를 보이고있는 현 당국을 비난하고있다.

《희망대일》과 《동해북부선련결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가 북남도로, 철도련결과 관련하여 실제로 진행한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며 그 무슨 《승인》과 《대북제재》에 빚대어 주저할것이

아니라 합의당사자로서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리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9월 19일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1주년 평화통일대회》를 열고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참가자들은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1년을 맞는 오늘을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뭉치서 지 않는 북남관계를 위한 성장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하면서 현 당국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변본부, 안산본부, 경기본부 등 각 지역본부들도 기념집회, 기자회견들을 열고 우리의 기대나 꿈이 점점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고 실망을 표시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남선언리행에 나서라고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북남선언들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해결한다고 밝힌 민족자주정신을 적극 지지하며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해 당국이 북남선언리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도 북남선언리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있는 현 당국에 대해 비판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파이낸셜뉴스》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1년을 계기로 독립관을 설정하고 현 북남관계교착상황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추론들을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역사적인 9.19남북공동선언발표 1주년 이 됐지만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주요사업들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이

9월평양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오던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이같은 파제의 해결에 대해 합의의 이룬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 새 국면으로 나아갈수 있다는 희망으로 넘쳤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진것이 없다》, 《정부가 (민족자주), (민족자결)이라는 말을 선언에만 박아넣지 말고 실제로 보여주어야 하며 당사자로서 남북선언리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당국이 북남선언리행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본사기자

날로 무뎠어지는 독도강탈기도

남의것을 제 것이 라고 우기며 무분별하게 날뛰는자들이 있다. 바로 일본이다.

얼마전 일본정부는 《2019년 방위백서》에서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존재하고있다》고 서술하였다.

일본 방위성은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 후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있다.

이로써 독도를 한사코 가로라고하려는 일본의 검은 속심이 또다시 여실히 드러났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다양한 력사적, 법적 근거가 없는 완전한 생역지이며 케번이다.

독도는 력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나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이다.

이를 립증해주는 자료는 수없이 많다.

《삼국사기》, 《고려사》, 《성종실록》 등 수많은 력사책들과 《조선연안수로집》, 《단국선지》, 《시마네현

지》 등 일본측 사료들에도 엄연하게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있다.

지난해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본의 력사지도들이 공개되었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것을 인정하고있다.

로씨야의 아시아지리전문가인 왈레리 글루쉬코프교수는 지난해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라는 제목의 자기가 쓴 저서에서 1943년부터 1951년 사이에 소련과 미국, 영국 등이 맺은 조약과 협정들에는 독도가 조선의 렬수 없는 일부라고 밝혀져있다고 피력하였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 무슨 《불법점거》를 운운하며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한사코 우겨대고있다.

력사적사실과 국제법적원칙도 모두 짓밟는 일본의 렬도강탈책동은 변하지 않은 일본의 침략적본성을 잘 말해주는것이다.

허위와 억지로 일관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본질에 있어서 새로운 조선제침략, 현대판 《정환론》이다.

일본이 조선제침을 실현하기 위해 내걸고있는 구실이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이다.

일본은 해마다 발간하는 《외교청서》, 《방위백서》와 같은 국가문서들에 독도

를 《일본영토》라고 계속 쪼아박아넣음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일본인들의 머리속에 대한 적대적의식, 침략의 당위성을 불어넣고 대외적으로는 조선제침책동을 《영토수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해보려 하고있다.

일본이 독도를 군사적으로 가로라고하기 위한 침략훈련을 여러차례 강행하였다는것도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다못해 항공 《자위대》 전투기의 출격까지 넘부에 둔것은 무력행사를 통해서라도 독도를 강압적으로 타고앉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얼마전 일본의 한 극우익정객은 전쟁으로 독도를 탈환해야 한다는 망언까지 내뱉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총칼로 세계의 정의와 량심을 통략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 약탈하던 제국시대처럼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하려고 무모하게 날뛰고있다.

하지만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노려보며 군침을 흘려도 그것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일본이 제땅이라고 침범파악해 우겨도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정쟁만 일삼는 시정배무리

넘불에는 마음이 없고 재박에만 정신이 팔린다는 격언이 있다.

할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제 리속만 차리는 경향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자한당》이 노는 행태가 이 격언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고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에서 민생은 말이 아니다.

일제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남조선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두고 감행되는 일본의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경제침략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있다. 여기에 얼마전 제주도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 큰 피해를 준 태풍과 해마다 봄과 가을철에 반복되는 미세먼지, 최근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수많은 문제들이 민생을 위협하고있다. 그것을 해소해달라고 남조선민심은 정치계에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제1야당이라고 자처하는 《자유

한국당》은 민심의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행동하고있는가.

《국회》에 앉아 민생문제를 론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뛰쳐나가 그 무슨 1인시위투쟁과 장외투쟁, 《릴레이식박발》, 《죽정조사추구》, 단식농움 등에 여념이 없다. 《자한당》이 벌리는 그 무슨 장외투쟁을 비롯하여 이리저리한 행동들은 적폐세력으로 불리운자들이 여론의 눈길을 따내려고 돌리고 어떻게 해서나 제집권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출발한것이다.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다못해 《동물국회》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부리는 추태는 실로 사람들의 눈살만 찌프리게 하고있다.

가관은 백성을 개, 돼지보다 못한것으로 치부하는 《자한당》이 현 당국에 의 해 민생이 크게 파탄된듯이 떠들면서 마치도 저들이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듯이 너스레를 퍼워대고있는것이 다. 얼마전 《자한당》대표

황교안이 이미전에 력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리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747공약》과 《474공약》을 그대로 모방한 《민부론》을 내 흔들면서 민심을 기만한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실례이다.

리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반인민적경제정책과 갖은 악정으로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무포세대》와 같이 인생의 모든것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자들이 새삼스레 민생을 론한다는것자체가 민심을 우롱하는것이다. 《자한당》이 불필요한 정쟁은 그만두고 시급한 민생을 론하는 자의 요구는 들은척도 않고 어느 장관의 사생활과 관련된 미주알고주알 캐여물으면서 정쟁만 일삼고있는것도 민생외면당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있다.

지금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은 《국민의 명령은 황교안 정계퇴출》, 《더러운 입으로 민생 떠드는 쓰레기 《자한당》 해체》라며 련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김명혁

남조선대 학생들 미국에서 조선반도평화 실현을 위한 활동 전개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대학생들로 구성된 평화행진단 성원들이 미국에서 조선반도평화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9월 24일 뉴욕에 도착한 그들은 유엔본부앞에서 《대북제재 해제하라!》, 《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관련 내정간섭 중단하라!》, 《6.12북미합의 리행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웨치면서 선전활동을 벌였다.

이어 그들은 시내의 여러곳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구호판을 들고 조선반도평화실현을 방해하는 미국규탄행동을 벌였다.

평화행진단 성원들은 9월 25일과 26일 워싱턴에서 미국규탄행동을 이어갔다.

백악관앞에서 그들은 미국이 조선반도평화보장에 나설것을 요구하며 항의운동을 벌였다.

이에 앞서 미국방성건물앞

에서 민족자주, 민족자결을 주장하였으며 국회의사당앞에서는 미국규탄연설회를 가지었다.

연설자는 미국이 유엔을 앞세워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남조선에 배치한 무력을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만이 조선반도평화와 변영,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평화행진단 성원들은 또한 미국의 행정기관들을 돌며 평화행동을 계속하였다.

많은 미국시민들이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번 활동과 관련하여 평화행진단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빌려놓고 북을 적대시하며 제재를 가하는데 대해 반대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평화실현방해책동을 그만둘 때까지 투쟁할 의지를 천명하였다.

본사기자



보도된바와 같이 9월 28일 서울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련대의 주최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초불집회가 진행되었다.

광주와 대전, 대구, 부산을 비롯한 각지에서 모여온 수백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초불과 함께 《검찰개혁 이루어내자》, 《(자한당)을 수사하라》 등의 구호판들을 든 참가자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이 도로에 모여들어 초불바다를 이루고 기세를 올렸다.

발언자들은 검찰과 보수언론이 신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범죄의자로 몰아가고있지만 진짜 범죄자는 지금까지 국민우에 군림하여 직권을 탐용해온 검찰과 검찰이 주는 가짜정보를 받아쓰는 언론이라고 규탄하였다.

검찰이 불서를 제공하면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에서 칼춤을 추는것이 오늘의 형국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정의롭지 못한 검찰의 행태가 더는 용납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인것은 검찰의 횡포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는것으로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주장하였다.

초불의 힘으로 검찰과 언론, 적폐야당의 야합을 박살내자고 하면서 그들은 검찰의 특권권력을 깨버리기 위한 강력한 내부개혁, 수사권의 시급한 조정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동안 참가자들은 대검찰청건물에 레이

자빔으로 《정치검찰 물러나라》는 글자를 새기며 검찰개혁과 《자한당》에 대한 수사를 주장하는 구호를 웨쳤다.

각지에서 모여온 주민들은 집회에 참가한 리유는 검찰개혁때문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열망을 보여주었고왔다. 이기세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부산일보》, 《자주시보》, 《서울경제》, 《오마이뉴스》,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언론

들은 《수백만 초불국민 검찰개혁 요구, 민주주의 승배를 가를 핵심》, 《수백만 시민 〈검찰개혁〉 분노의 함성, 제2의 초불혁명》 등의 제목으로 이날의 투쟁소식을 전하면서 《초불시작전부터 끝없는 인파》, 《국민의 분노가 수백만 초불로 타올랐다》, 《2016년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퇴진 초불집회를 련상케 할 정도의 인파가 모였다》, 《박근혜핵초불의 재연》이라고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주체적인 제철법이 창조되던 날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기 제15차 전원회의와 최고 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데 대한 방침과 제2차 7개년 (1978-1984)계획의 전망목표가 제시되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제2차 7개년 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로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 것이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여 발휘하자!》라는 구호를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들고나가야 할 구호로 제시해 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제2차 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쳐나가도록 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우리의 자원으로 더욱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채취공업과 발전소 건설에 큰 힘을 쏟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체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는 원칙에서 공업을 보장하고 새로운 공업부문을 창설함으로써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열간 및 압연분장장을 비롯한 건설중에 있는 대상들을 빨리 완공

하고 새로운 대상들의 건설과 정비보강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도록 하시고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화학공업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새로운 화학공업부문을 창설하는 원칙에서 화학공장을 많이 지어 여러가지 화학제품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충족시키도록 하시었다.

자체의 연료에 의거하는 현대적인 제철법을 찾아낸 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에 이룩한 빛나는 성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국내에 무진장한 무연탄에 의한 철생산문제를 제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47(1958)년 12월 어느날 일군들에게 지금 용광로는 폭스탄을 먹게 되어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만약 제철법을 먼저 발전시킨 나라에서 폭스탄이 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방법이 나왔을 것이 아닌가, 봉건통치배들이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산업혁명을 하였더라면 우리 나라에서도 무연탄같은 것을 가지고 제철하는 방법이 나왔을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기술로 제 나라를 일떠세우려는 확고한 신념만 있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고는 회전문이든, 용광로이든 관계없이 어떻게 하나 우리 식으로 제철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방도는 여러가지가 있다, 전기제철로 하든지, 폭스탄을 쓰지 않

고 갈탄이나 무연탄을 가지고 제철하든지 연구해 보라고 교시하시었다.

주체 66(1977)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위한 방도를 탐구하시며 기술자들을 보시다가 하나의 귀중한 싹을 찾아내시었다. 그것은 완전한 주체적인 제철법으로 될 수도 있는 어느 한 연구사업에 대한 자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자료를 보고 또 보시다가 일군들을 부르시어 그 실험연구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라고 하시며 특별비행기까지 띄워주시었다. 그날부터 매일같이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시었으나 현지에 나갔던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기술자료에 있는 방법에 의한 제철시험은 실패로 끝났으며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만둔지 오래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일이 흘러 일군들도 그것에 대해 알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해당 부분 일군들을 부르시었다. 기대가 깊던 제철방법의 치명적인 약점을 명철하게 헤아려보시고 전혀 다른 새롭고 독자적인 방법을 모색하시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완전히 주체적인 새 제철방법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것은 폭스탄제철, 용광로 제철의 울타리안에서는 생각도 할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기존제철방식에 포로되어 수 십년을 고심하

면서도 옳은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있던 일군들과 야금기술자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대변에 방황전환시켜준 하나의 발명이었다.

주체 67(1978)년 4월 어느날 북방의 한 철의 기지에서 이 새로운 방법에 의한 철생산을 대하여 보고받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시며 곧 그 제품을 가져오게 하시었다. 견본품들을 손수 드시고 무게와 모양도 가능해보시며 몇 번이고 만져도 보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새로운 철에 이름도 달아주시고 연구사업에 공로가 있는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제철법이 실현된 후에도 친히 현지에 나가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기본 고리가 풀리게 되며 우리나라 야금공업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주체철에 의한 강철생산 방법을 연구할데 대한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그 연구성과를 보고받으시고는 아주 훌륭한 발명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고무해주시었다.

그리고 주체 68(1979)년에는 이미 있는 설비들을 개조하고 새로운 로들을 더 건설하여 주체적인 철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그 건설을 힘있게 내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준경

이해의 가을은 참으로 류다르다. 센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진것이 언제였는가 실제 하늘은 가없이 맑고 푸르다.

황포한 자연의 광란을 이겨낸 이 땅에서 일터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씩씩해지고 한뫼음, 한뫼음 일췌세운 벼들을 베어가는 손길에도 비관은 없다. 태풍피해로부터 귀중한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자가 된 인민이기때문이다.

지난 9월 7일부터 이 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태풍 13호는 강한 바람과 무더기 비를 동반하여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피해를 발생시켰다. 초당 25m이상의 센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들이 뿌리채 뽑히고 살림집과 건물들의 지붕이 못쓰게 되었다.

태풍이 지나가자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인들이 힘을 합쳐 피해복구사업에 한걸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현지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휘하였다.

태풍이 지나가자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인들이 힘을 합쳐 피해복구사업에 한걸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현지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휘하였다.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졌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을 중요과제로 반영하고 자재와 시랑, 생활필수품, 의복 등을 시급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다.

산과 계곡, 하천, 낮은 지대, 침수위험지역, 산사태의심지역, 지하공간, 붕괴위험건물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한 활동을 책임적으로 시급히 조직할데 대하여 그리도 간곡히 말씀하시며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

여러 지역의 송배전단위들에서는 송전선망들을 시급히 복구하고 피해지역들과 철도, 생산단위들에 전력을 중단없이 보장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도 피해복구용물자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화차와 견인기를 집중동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인민을 위한 국가적인 배상 대책

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 하나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민적 뜻을 받아안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모든 단위들에 이르기까지 태풍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비상대책이 세워졌다. 내각, 성, 중앙기관들과 각도, 시, 군들이 총동원되어 비상태세에 진입하는 현실이 펼쳐졌다.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졌다.

태풍이 지나가자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인들이 힘을 합쳐 피해복구사업에 한걸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현지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휘하였다.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졌다.

태풍이 지나가자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인들이 힘을 합쳐 피해복구사업에 한걸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현지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휘하였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이미 마련된 수많은 의약품, 의료소모품, 예방약들을 피해지역에 보내주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학습장, 학습품들을 보내 주어 그들이 배움의 글소리를 변함없이 울려가도록 하였다.

자연재해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다. 자연을 떠나 살수 없는 것이 인간이면서도 자연의 광란으로 불행과 고통을 때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여러 나라에서 태풍이나 큰물, 무더기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혈육과 보금자리를 잃고 소중했던 생활을 종지에 몰아버려 가슴속에서 피나는 상처들을 안은 채 생활고에 허덕이고있다.

그들에게서 울려나오는 것은 절망과 비관의 한숨소리 뿐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엄중한 자연을 길들여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람차고 벽찬 생활의 흐름을 즐기치게 하여가고있다.

이 땅에도 불어친 태풍13호는 적지 않은것을 세찬바

람속에 휩쓸었다. 그러나 자연의 광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이 나라 인민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운분들로서 살고 있는가를 모시고 사는가를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다.

돌이켜보면 뜻밖에 큰 재앙이 덮쳐들 때마다 그가 누구든, 그 어느곳에 있던 한 몸이 안아 상실의 아픔을 가셔주고 새 생명의 기쁨을 안겨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스한 손길이었다.

라신시에서와 함북도북부지역에서 재난의 파도가 휩쓸어간 모든것보다 더 큰것을 안겨주려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재해로 한지에 나앉았던 불행의 주인공들이 행복의 보금자리의 주인공들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 인민을 제일로 위해주는 공화국을 떠나서는 하루, 한 시도 살수 없고 그 품에 사는 행복을 천만금과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령도자와 이런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이 땅에는 영원히 불행이 깃들지 않는다.

황포한 자연의 풍파가 친빈이고 만빈이고 덮쳐들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더욱 안겨들며 세상에 없는 혼연일체의 화복을 펼쳐가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이 땅에 생을 둔 인민 한 사람한사람을 자신의 살붙이마냥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인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고 그 힘으로 공화국은 더 눈부신 태양을 힘차게 마중해가고있다.

본사기자 홍秉식

중앙식물원 식물관리직장 수목원관리작업반장인 공훈도시관리공 김순희녀성은 48년간을 조선의 국화인 목련꽃과 더불어 값높은 자옥을 새겨왔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고향이 량강도 풍서군 속신리인 김순희녀성은 그 가족이 평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후 중학교(당시)를 졸업한 김순희녀성은 단발머리를 훗날리며 평양식물원(당시)에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질었다.

그는 처음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모를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오랜 관리원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따라다녔다.

그무렵 이곳 식물원에서 200그루의 목련꽃나무재배지역을 꾸리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목련꽃이 폈어요. 저쪽 펴기 나무숲속에 있는 목련꽃나무에서 꽃봉오리가 피어났어요!》 모두가 그속으로 달려갔다. 김순희녀성도 작업반원들을 따라 달려갔다.

잠시후 펴기나무숲에 이른 그의 눈앞에서 흰눈처럼 깨끗하고 소담한 꽃송이가 활짝 피어 웃고 있었다.

아름답고 정갈한 조선의 꽃! 그날 작업반장은 김순희녀성에게 이야기해주었다.

목련꽃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의 뜻에 대하여, 여러해전 평양식물원에 몸소 찾아오시어 이곳에 200그루의 목련꽃나무재배지역을 꾸리고 잘 관리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김순희녀성은 그날 목련꽃향기를 한껏 들이키며 마음속으로 맹세를 다지

목련꽃과 함께 48년

었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목련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한 사업에 한 평생을 다 바치리라!)

목련꽃나무모를 키우는 나날 김순희녀성은 늘 대오의 앞장서서 산길을 뚫고 노래와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20여일간의 간산신고끝에 목련꽃나무모전량을 마련했을 때 그의 가슴은 환희와 보람으로 눈뽀였다.

그후 김순희녀성은 목련꽃나무포전에서 살다싶이 했다.

하루일을 시작하기 전 이른아침이면 남면저 포전으로 달려가 나무모상태를 살펴본곤 하였다.

작업반원들이 다 퇴근한 뒤에도 그는 포전에 남아 물을 주고 나무모를 가꾸곤 하였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그는 작업반장으로 성장했다.

그 나날 김순희녀성은 어린이의 키만 하던 목련꽃나무 200여그루를 하나와 같이 튼튼하게 자라워 첫 종자를 수확했다.

그리고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가장 합리적인 목련꽃나무번식과 재배방법을 찾아냈다.

온 나라에 퍼져가는 목련꽃향기, 김순희녀성에게는 그것이 곧 한평생의 기쁨이고 긍지였다.

이 나날 김순희녀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를 수여받았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와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목련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오늘도 김순희녀성은 목련꽃나무와 더불어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걷고 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세상에 부럼없이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는 공화국의 새세대들

공화국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미래로 떠메고 나가는 유능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이 최대로 중시되고있다.

깊은 산골이나 외진 섬에 있는 한두명의 어린이를 위하여서도 학교가 세워지고 교원들이 찾아가고있으며 장애자 어린이들도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누리고있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육아원, 예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국가적 관심속에 훌륭히 꾸려지고 운영되고있는 속에 올해초에는 수시명의 평양중등학교원 원아들이 자기들의 희망대로 대학에 입학한 소식이 전해져 만사람의 가슴속에 사회주의조국의 귀중함을 다시금 새겨주었다.

각지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을 비롯한 과외교양거점들과 과외생활기지들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청소년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학교전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단계까지도 국가의 전적

인 부담속에 무료로 보장되고있다. 그러나 인간의 따뜻한 정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제일 큰 피해를 입고있는것은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꽃피워야 할 아이들이다. 일본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일본에서 어린

이학대는 사회에 만연하는 고질적인 악습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올해초 지방의 노다시에서는 10살 난 처녀애가 가정에서의 폭력행위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당일날 아버지라고 하는 남성은 어린 딸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내동댕이쳤는가 하면 목을 움켜잡고 매를 안겼다. 소녀는 오래전부터 먹을것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해 영양실조중에 걸린 상태였다고 한다. 아버지에게서 계속

무서운 폭행을 당해온 소녀는 어린이보호기관과 학교 등 해당 기관들에 불행한 처지에 처했으나도록 도와줄것을 간절히 애원하였지만 매번 무시당하였다. 결국 그에게 차려진것은 참혹한 죽음이였다. 얼마전에는 오이다현에서 한 녀성이 어린 화살의 손등을 당나뭇잎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후쿠오카현

이학대로 유휴관결을 받은 성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자기 죄를 인정하였으며 그들자체도 어릴적에 부모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학대를 받으며 자랐다고 실토하였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보아도 일본에서 어린이학대가 얼마나 무리있는것이냐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새세대들을 통해 본 국가의 미래

에서 어머니가 8살 난 자기 딸의 두손을 묶어놓고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으며 마구 때린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렇듯 인간의 따뜻한 정이 점점 사멸되어가는 자본주의사회인 일본에서 어린이들은 참혹한 학대와 멸시속에 시들어버리고있다. 문제는 이 나라에서 어린이학대로 행위가 나날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것이다. 올해 3월 이 나라의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데 의하면 어린

이학대로 유휴관결을 받은 성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자기 죄를 인정하였으며 그들자체도 어릴적에 부모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학대를 받으며 자랐다고 실토하였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보아도 일본에서 어린이학대가 얼마나 무리있는것이냐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일본경찰청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전국적으로 8만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았으며 이것은 2017년에 비해 22.4% 더 증가한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일본의 청소년들은 범죄와 자살의 길을 서슴없이 택하고있다. 얼마전 일본경찰청은 2018년 한해동안에 사기 등 지능범죄로 체포된 미성년은 1 155명이며 그중 특수사기사건에 관계한 20살미만의 범죄자는 750명으로서 2017년에 비해 약

1.6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죄임에 넘어가 범죄집단의 한 성원으로 되고있으며 여기에 한번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폭력배들의 위협으로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한다.

한편 학교졸업후의 장래문제, 가정불화 등으로 절망과 정신적허탈감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린이들이 부지기수인데 어느 한 기관이 종합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14살 어린이들의 사망원인중 자살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 전국의 학교들에서 보고된 학생 자살사수만도 25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한창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배움의 꿈과 희망을 잃고 각종 범죄와 타락의 길에서 헤매이며 자살의 길을 택하는 자본주의현실은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밝은 미래, 양양한 전도를 가진 사회이라면 자본주의는 미래가 암담하기 그지없는 암흑세상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일국



개 천 절 기 념 행 사 진 행

개천절기념행사가 3일 단군릉앞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원수, 리종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



장들, 김철훈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관계부서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저 단군제가 있었다. 이어 기념보고를 리명철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단군릉을 웅장하게 일떠세우시어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주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어 투철한 자주사상과 비범한 정치실력, 애국헌신으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가시는데 대하여 엄격하였다.

조국통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라고 하면서 그는 온 겨레가 단군민족의 강대한 힘과 통일의를 총분출시켜 자주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회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 진행—

날로 발전하는 악기제작기술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문악기생산단위들과 예술교육기관, 개별적인 제작자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출품한 오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갖가지 악기들과 손풍금을 비롯한 양악기들, 부분품, 소모품들 천수백여점이 전시되었다.

평양민족악기공장에서 전시회에 개막된 현악기들과 목관악기들을 출품하였다. 전시회장에서 전문가들과 음악애호가들은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정밀공한 부분품들로 만든

유류금, 장새남, 단소, 피리와 같은 민족악기들을 직접 연주해보면서 악기들의 음색과 음정 등에서 확실히 개선된것을 알린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김원명명칭 음악종합대학 악기제작학부에서는 가야금과 바이올린, 북을 비롯한 악기들을 전시회에 내놓았다.

이곳 악기제작학부에서 연구한 가야금제작기술은 2017년에 국가비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민족의 자랑이고 재부인 민족악기제작기술의 명

맥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이들의 탐구열정이 깃든 가야금앞에서 참관자들은 쉬이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국립악기연구소에서도 유도색방법을 도입한 가야금과 무수초산으로 앞판을 변성처리한 어은금을 비롯하여 현악기용활송지, 가야금무릎받치개 등 수십여점에 달하는 민족악기들과 부분품들을 출품하였다.

이곳 연구사의 말에 의하면 두명유화기를 아마유에 풀어 밀색처리하는 유도색방법을 도입하면 수분대신 기름분자가 들어앉아 목재의 조직구조를 밀폐시켜 일치하면서도 고르로운 울림관으로 되게 하면서도 악기들에 영향을 주는 습기를 차폐시키는데 좋다고 한다. 이밖에 도서악기공장에서 출품한 장고와 북, 반고를 비롯한 민족악기제품들도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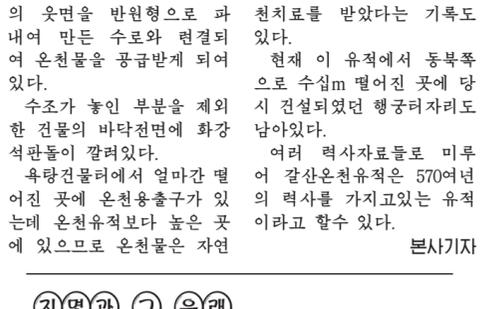
전시회에는 피아노, 손풍금, 바얀을 비롯한 양악기들도 많이 출품되었다.

평양악기공장에서 출품한 《은방울》 상표를 단 손풍금과 바얀들은 음량이 풍부하고 음정이 정확하며 음색과 형태가 다양함으로써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시회장을 돌아본 외국인들도 평양악기공장 전시대에서 걸음을 멈추고 《은방울》 손풍금과 바얀의 질이 아주 높다고 평가하였다. 개천절도국 철도영예일군공장에서 제작한 트럼베트를 비롯한 금관악기와 평양피아노합형회사에서 전시한 여러가지 형태의 피아노들도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회기간 악기제작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과 관련한 경험발표회와 연주회들도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높은 수준에 올랐던 훌륭한 악기제작기술과 우리 겨레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민족악기의 우수성을 잘 보여준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전시회장에 전시된 악기들

—남포시의 림광일가정을 찾아서—

소문난 바둑애호가 가정

남포시 황구구역 하비석동 35인민반에 가면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바둑애호가 가정이다.

올해 65살에 나는 림광일의 가정이다. 림광일과 그의 아내, 맏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담하는 바둑명수들이다.

그의 집에 들어서면 첫눈에 띄우는것이 벽면에 걸려있는 많은 상장들이다.

지난 시기 림광일의 이해와 자식들이 지역별 또는 전국적인 바둑경기에 참가하여 받은 상장들

하면서부터였다 한다. 이다음 커서 훌륭한 바둑 선수가 되었다는 어린 자식들의 말에 대견함을 금치 못하며 흥정순녀성은 자식들의 바둑실력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는 심정으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중년나이에 천수만수 갈래 많은 바둑의 묘리를 익히자니 여간 힘들지 않았지만 흥정순녀성은 이악하게 바둑세계의 신묘한 수를 하나하나 익혀나갔다.

그리고 저녁시간이면 자식들과 바둑을 두며 대상선수가 되어주곤 하였다.

이 나날 흥정순녀성의 맏아들과 둘째아들의 바둑수준은 볼라보게 발전하여 전국

적인 바둑애호가정들에서 여러차례 상장을 받았다. 현재 그의 맏아들은 남포시바둑원에서 기술부원으로 사업하고있고 갓 시집은 그의 아내 김수향녀성과 와우도구역 남흥유치원에서 교양원으로 사업하면서 어린 아들에게 바둑을 배우주고 있다.

림광일의 가정에서는 저녁시간이면 모처럼 모여앉아 바둑수를 익히고 바둑경기를 하는것이 하나의 일과로 되고있다.

특히 일요일이나 명절날이면 집안이 바둑경기로 더욱 흥성인다.

어릴 가나 이러한 바둑애호가 가정들이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10월의 절기와 민속

한로와 상강은 24절기 가운데서 10월에 드는 절기들이다. 한로는 찬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라는 뜻으로 양력으로 10월 7~9일경에 들며 상강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으로서 양력 10월 23~24일경에 든다. 이 절기에 날씨는 차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며 밤에는 서리가 내린다. 또한 제비가 강남으로 가고 북쪽에서 기러기가 날아든다.

에로부터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은 봄내여름내 땀흘려 지는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바삐 일하였으며 이런 데로부터 《가을에는 부지깥이도 된다.》라는 속담까지 전해지고있다. 한로를 전후한 시기 벼가을과 함께 풍, 조, 수수를 비롯한 밭곡식을 거두어들였으며 봄뭇보리

파종을 진행하였다. 상강때에는 겨울김장용배추무기와 함께 갈배기를 하였다. 농민들은 가을걷이를 앞둔 때에 추어탕을 꾸짖지 않고 끓여먹고 기운을 돋구곤 하였으며 사람들은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가지 콩음식과 국화전을 들 수 있다.

상강때에 함경도의 산간지대에서는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갖으로 김치를 담그어먹곤 하였으며 황해도 지방에서는 살찐 계를 잡아 제점을 해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 아이들속에서 송박과질, 망창기와 같은 다양한 민속놀이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올해 한로는 10월 8일이며 상강은 10월 24일이다.

본사기자

옛날 우리 민족은 가을철의 민속명절로 중추절을 쇠었다. 《중추》(重秋)란 아홉 구자가 중복된다는것으로서 음력 9월 9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날을 《중양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양수(홍수)가 중복된 날이라는 뜻이다. 중추를 명절로 맞는 기록은 고려 시기에 처음으로 보인다. 《고려사》에는 중추가 9개 속절 가운데 들어있다.

중추절의 중요한 놀이는 단풍과 국화 등 저물어가는 가을철의 자연풍경을 감상하는것이였다. 이날에는 독특한 음식으로서 국화지짐과 화채를 해 먹었다.

국화지짐은 찹쌀가루반죽

에 국화꽃잎을 넣고 기름에 지져 끝에 채워 만들었는데 《국화떡》, 《국화전》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배, 유자, 석류열매를 얇게 썰어서 갖개와 같이 꿀에 재운것을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타고 거기에 국화꽃을 띄운 국화화채를 음료로 마시었다.

중추절에는 술도 국화주를 마시었다. 국화주는 국화꽃이 만발하였을 때 그 꽃잎과 줄기를 잘 씻어서 기장을 넣어 한해 동안 묵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든 국화주는 국화 모양의 잔 《국화잔》으로 마셔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러면 장수한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이다. 특히 그의 이해 흥정순녀성의 바둑실력은 남포시적으로 높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하다.

흥정순녀성은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바둑애호가경기 1급헌성복식에서 1등을 쟁취하였다.

흥정순녀성이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것은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바둑을 두기 시작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산나물을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산나물고추장, 산나물된장도 많이 개발하여

대동강식품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종류의 고추장과 된장은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으며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고있다. 본사기자

국화국의 대동강식품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기초식품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인기를 끄는 기초식품들

평양시 선교구역에 위치한 대동강식품공장에서 《평양》상표를 단 쌀고추장, 메주된장을 기본으로 생산하고 있다.

공정에서는 맛이 독특하고

맛을, 참깨고추장, 참깨된장, 도라지, 더덕, 병이, 달래를 비롯한 산나물고추장, 산나물된장 등이 있다.

사화

은 향 아 리 (1)

글 리 상 절, 그림 채 대 성

숙송(조선봉건왕조 19대 왕)대왕시절 어느해 봄날이었다.

인왕산마루턱으로 먹장같은 구름이 몽게몽게 넘어오더니 《와드닥! 딱! 딱!》하며 소나무가 한바탕 쏟아져 내렸다. 이윽고 하늘은 언제 호았던가싶게 진듯 맑아지더니 김학성이네 집 처마밑으로 비단결같은 해살이 곱다랗게 비쳐들었다.

이때껏 열어제긴 방 안에서 문지방을 걸고 앉아서 시름겨운 우울한 낯빛으로 비오는 밤을 내다보고있던 학성 어머니의 얼굴에도 어느덧 밝은 해살이 비껴였다.

어찌가 남편을 여의고 홀어미가 된 그는 아들형제를 데리고 가난한 살림을 해나가느라 근심걱정 가실 날이 없었다.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이 컸거니와 그보다도 형제가 어지러운 시가에서 파연 어린 자식들을 순결히 키워낼 수 있었는가 하는 걱정이 더 큰 어머니였다.

오늘도 방 안에서 이러한

근심걱정으로 우울을 못 견디어하던 어머니는 홀연 시원히 개이는 날씨와 눈부시게 비쳐드는 햇빛때문에 집 뒷 명랑해진듯 《에라, 솔데 없는 근심은 해서 무엇하는고.》 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햇빛밝은 마당가로 훌쩍 나갔다.

문밖에 나선 부인은 무심코 처마끝에서 떨어지는 락수물소리에 귀를 기울여었다. 이상한것은 락수물 떨어지는 명바닥에서 《뽕! 뽕!》하는 소리가 레사의 락수물소리가 아니었던것이다.

그곳으로 다가간 부인은 쪼크리고 앉아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귀를 기울이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그 자리의 진랑을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부인은 잠시후 땅에 묻힌 솔뚜쟁이를 발견하였다.

안을 들여다보던 부인은 그만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빛은 잠시 해송해졌으며 가슴은 막 활랑거렸다.

놀라움이 너무도 컸던탓으로 한참동안 맥을 놓고있던 부인은 밖으로 나갔던 아들 학성이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기척을 듣고서야 소스라치듯 황급히 솔뚜쟁이를 들고 얼른 흙을 씌어 도로 묻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부인의 친정오라버니가 학성이네 집으로 왔다. 의논할 일이 있으니 급히 와달라는 학성 어머니의 기별이 있었던것이다.

오라버니가 이르러 남매간의 문안인사가 끝나자 부인은 곧 기별을 보낸 사연을 말하였다.

《때일이라도 당장 시골로 이사를 가야 할텐데 오라버니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너무도 뜻밖의 말에 이상히 여긴 오라버니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그 까닭을 물어봤으나 부인은 잠시 리유

도 말하지 않고 기어코 이사를 가게만 도와달라고 조르는것이였다.

《그럼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갈래냐?》

오라버니가 묻는 말이였다.

《너자가 할 일이야 누에나 치고 길쌈밖에 더 있겠어요.》 하고 부인은 넉넉히 대답하였다.

《그럼 뽕나무가 많고 목

집을 판다. 자기의것을 보태인다. 해가지고 서술사가에서 몇십리 떨어진 산간마을에 뽕나무 번성하고 삼밭터전이 있는 집 한채를 사서 누이를 그러로 이사시키였다.

그때로부터 학성이네 가정은 홀어머니와 아들형제가 손을 맞잡고 농사일에 몸을 적었다.

박하고 메마른 서울살림을

민속명절 중추

화발, 삼밭이 많은 고장으로 가겠단말이지?》

《집은 오막살이라도 좋으니 그런 고장으로 어서 이사를 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오라버니는 서둘러 며칠안으로 누이의



중추절의 민속놀이

갈산온천유적

의 옷면을 반원형으로 파내어 만든 수로와 연결되어 온천물을 공급받게 되어 있다.

수조가 놓인 부분을 제외한 건물은 바닥면에 화강석판들이 깔려있다. 유랑길물터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온천출구가 있는데 온천유적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천물은 자연

이루어졌다. 건물터에는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주춧돌들과 기단돌들이 남아있으며 유랑수조는 건물터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개의 대청으로 설치되어 있다.

수조들은 길쭉한 화강석 건물터에는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주춧돌들과 기단돌들이 남아있으며 유랑수조는 건물터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개의 대청으로 설치되어 있다.

수조가 놓인 부분을 제외한 건물은 바닥면에 화강석판들이 깔려있다. 유랑길물터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온천출구가 있는데 온천유적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천물은 자연

이루어졌다. 건물터에는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주춧돌들과 기단돌들이 남아있으며 유랑수조는 건물터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개의 대청으로 설치되어 있다.

수조가 놓인 부분을 제외한 건물은 바닥면에 화강석판들이 깔려있다. 유랑길물터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온천출구가 있는데 온천유적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천물은 자연

이루어졌다. 건물터에는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주춧돌들과 기단돌들이 남아있으며 유랑수조는 건물터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개의 대청으로 설치되어 있다.

수조가 놓인 부분을 제외한 건물은 바닥면에 화강석판들이 깔려있다. 유랑길물터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온천출구가 있는데 온천유적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천물은 자연

이루어졌다. 건물터에는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주춧돌들과 기단돌들이 남아있으며 유랑수조는 건물터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개의 대청으로 설치되어 있다.

수조가 놓인 부분을 제외한 건물은 바닥면에 화강석판들이 깔려있다. 유랑길물터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 온천출구가 있는데 온천유적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천물은 자연

이루어졌다. 건물터에는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주춧돌들과 기단돌들이 남아있으며 유랑수조는 건물터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개의 대청으로 설치되어 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